

기생 잔치판의 노래; 〈艷謠〉

정병설(서울대)

〈艷謠〉는 미국 버클리대학(U.C. Berkeley) 아사미문고에 있는 책이다.¹⁾ 표제가 〈艷謠〉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몇 권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1책만 남아 있다. 총 29장으로, 앞의 6장에는 국한문혼용의 시조, 가사들이 실려 있고, 뒤의 23장에는 한문으로 正祖, 孝宗에 대한 致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치제문들은 그저 베낀 것에 불과하지만, 앞에 실린 두 편의 가사와 다섯 편의 시조는 모두 충청도 공주의 아전배와 기생들이 잔치를 벌이며 지은 것으로, 실제 기생 잔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맨 앞의 두 작품에는 과거 시험에서 등수를 매기는 것처럼 작가의 이름과 함께 ‘二上’이니 ‘三上’이니 하는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아마 아전배들이 기생들에게 시조, 가사를 짓게 하고 등수를 매겨 상을 주는 놀이를 한 듯하다. 아전배로는 김병방이니 서풍헌이니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기생으로는 형산옥, 조운, 선아, 준예 등의 이름이 보이는 등 상황이 구체적이어서 연희의 현상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래에 나오는 갑술년은 1874년으로 추정된다.

수록 작품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목	장르	작자
1	금강석별낙양낭군곡	가사	기생 형산옥
2	단가	시조 3수	기생 인애
3	화산교가	가사	기생잔치 참여자(답)
4	추칠월기망범주서호가	시조 2수	기생잔치 참여자(답)

1) Chaoying Fang, *The Asami Library-A Descriptive Catalogu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370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복사본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들어와 있다.

<금강석별낙양낭군곡>은 공주 기생이 떠나간 서울 낭군을 그리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일종의 상사곡이다.

<단가> 역시 위와 같은 제목의 시조이다. <화산교가>로 볼 때, 이 노래들 전부가 공주 아전들이 기생을 모아 벌인 잔치에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서울 낭군과의 이별을 계속 운운하는 것을 보면, 공주 아전들이 서울에서 온 누구의 송별식을 위해 기생을 모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화산교가>는 앞에 창작 경위가 기술되어 있다. 공주의 아전 장교치들이 금지령을 어기고 너댓명의 기생을 데리고 화산교에서 놀다가 단속에 걸려 혼비백산한 일을 기록하노라고 했다. <춘향가>의 한 대목을 듣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추월월기망범주서호가>는 자신들의 잔치가 <적벽부>를 노래한 소동파의 흥취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태평성대 운운한 것으로 보아 잔치 마지막에 지어 부른 노래가 아닌가 한다.

K C I

■ 현대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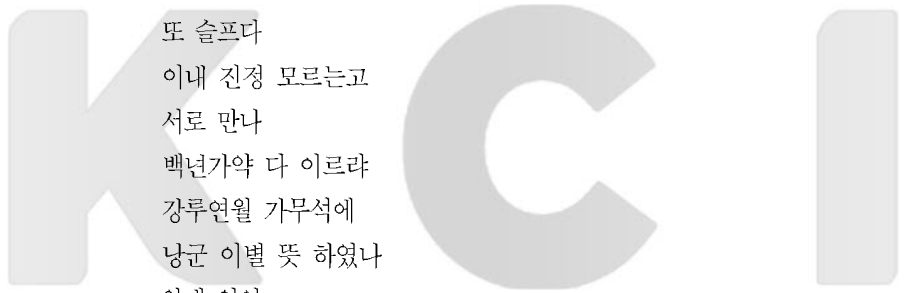
기생노래

금강에서 서울 낭군을 보내며

갑술년 6월 22일 공주기생 형산옥의 가사를 2등급 上으로 합격 판정하다.

고이하다 고이하다
 작년 이별 금년 이별
 연분도 덧없고
 서울낭군 이별 후에
 서울낭군 날 버리니
 공주인물 돌아보니
 아전 장교
 호방한 체 보기 싫고
 다시금 헤아리니
 금강 서쪽 한강 북쪽
 슬프고
 우리 낭군 어디 가고
 우리 둘이
 분벽사창 원앙침에
 녹양방초 호시절과
 사시장춘 노닐 적에
 무산 운우
 덧 없도다 덧 없도다
 나의 팔자 기박하여
 갈 기약이 정해지니

나의 팔자 고이하다
 이별마다 서울낭군
 이별도 잣을시고
 다시 말자 맹세로다
 이팔청춘 흘 늙을까
 호걸탕자 누구누구
 통인 관노
 말이 말씀 아니짚다
 아마도 우리 님은
 서울 인물뿐이로다
 또 슬프다
 이내 진정 모르는고
 서로 만나
 백년간약 다 이르라
 강루연월 가무석에
 낭군 이별 뜻 하였나
 양대 인연
 옛날 꿈만 여겼더니
 이런 이별 또 당한다
 남은 날이 멀지 않다



날은 어이 수이 오며
 보기 싫다 마부 거동
 포정문 밖 내다르니
 쌍수성 돌아 가니
 지국총 소리에
 긴 한숨 저른 한숨
 청산은 첩첩하고
 비긴 해는 무슨 일로
 말채 소리 귀에 얼른
 나삼을 부여잡고
 무정할손 저 낭군아
 속절없다 이별이야
 언제나 우리 낭군 다시 만나

닭은 어이 재촉하노
 듣기 싫다 행차소리
 대통교가 여기로다
 금강 구비 저기로다
 일촌간장 다 스는 듯
 이별 시에 말이 없다
 녹수는 유유한데
 이내 가슴 태우는고
 성남 길이 아득하다
 강바람에 빗기 서니
 홍안박명 어이 하리
 남은 간장 다 녹는다
 이생 인연 이어볼까

단가

제목은 위의 가사와 같으며, 기생 인애가 3등급 上으로 합격 판정하다.

서울은 인물 창고요
 금강 화류 서울 인물
 두어라 취커든 장취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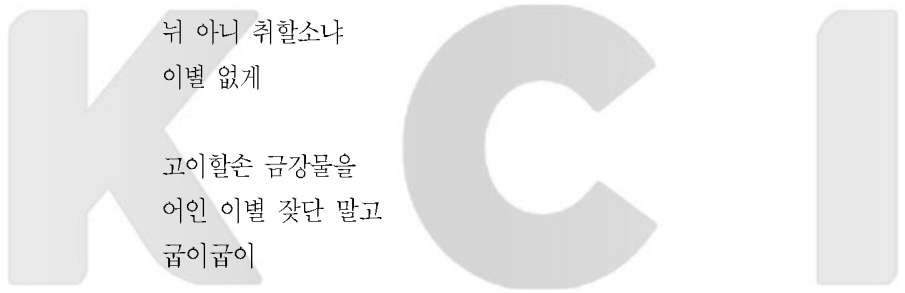
금강은 미인 숲이라
 뉘 아니 취할소냐
 이별 없게

애닦을손 서울 낭군
 서울 낭군 한번 오면
 어즈버 금강물은

고이할손 금강물을
 어인 이별 잣단 말고
 굽이굽이

서울은 어디메며
 연년세세 이 강가에
 슬프다 이 강 끝 아니라면

금강은 어디런고
 이별 찾아 늙으세라
 이 이별 없을손가



화산교가

7월 13일 밤 공주 아전 장교치들이 4, 5명 기생을 데리고 화산교에서 모여 술을 먹다, 영문 안으로 들어가 흥이 다하지 못하여 흠어졌는데, 갑자기 크게 겁나고 풍비박산하여 기절할 경색이 펼쳐지니 그를 기록하노라.

어와 호걸님네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때는 어느 땐고	음력칠월 보름께
강 위엔 비가 개고	공주금성 달 밝은 제
두어 호걸 너댓 기생	호탕한 흥을 계워
밤잔치 초 밝히니	좌상 풍류 질탕하다
기생 잔치 호걸 탕자	누구누구 모였던고
인물도 좋을시고 김병방	풍신도 동탕할사 박별장
기고관은 어이 오며	서풍헌은 무슨 일고
준수하다 박승발	맙시 있다 노형방
여러 명장 벌였으니	아마도 충청 인물 저뿐일다
차려 입은 기생 보니	절대가인 다 모였다
단장 얼굴 기생 잔치	춤과 교태 어땡던고
조출할손 '형산옥'과	아리따운 '준예'로다 ²⁾
무산 선녀 '조운'이며	봉도 선녀 '선아'런가
물색도 기묘하고	태도도 그지없다
휘여낭창 '계낭자'는	허리매도 맙시 있다
초승달 눈썹 흰 얼굴에	백만교태 어리었다
공교할손 조화옹은	네 인물 빗어내어
뉘 간장 섞이려고	저리 묘히 생겼는고
한때 풍류 전주 손님	공주 인물 구경코저
그들 산길 돌아들어	좌상 참여 고이찮다
인물도 험거롭고	미목도 너그럽다
절대가인 못 만난들	여중장부 상관하랴

2) 이하 따옴표는 모두 기생이름임.

늘씬한 다리 다 펼치면
 기벽 좋은 태인 기생
 맵시도 끔찍하고
 녹류 희롱 피꼬리며
 너의 태도 말하라면
 다른 기생 무안케 하니
 좌중 호걸 모인 중에
 풍악소리 질탕한데
 초대의 인연이며
 풍정도 그지없고
 못산에 밤이 깊고
 이 놀음 이 잔치를
 애닦을손 희극이야
 풍류 흥취 다 못하여
 군뢰 사령 늘어서서
 지엄할손 금지령에
 치마 덮어 얼굴 가림
 김병방의 거동보소
 서풍헌의 거동보소
 눈치 빠른 이행민은
 가련하다 가련하다
 꽃밭에 비바람 예사니
 음주흥취 교사하고
 언제나 이 땅에 다시 모여

수습하기 어려울내
 잔치 참여 어인 일고
 말이 말쑥 아리따다
 누각 물찬 제비런가
 이루 형용 어렵도다
 태인 인물 뛰어나다
 굳센 남자 몇몇이리
 보낸 추파 암암하다
 낙포의 해후런가
 회포도 은근할사
 다리 아랜 달 잠기니
 어느 뉘가 아을손가
 세상사 순탄찮아
 늦은 밤 야삼경에
 평지풍파 어인 일고
 기생잔치 들리었다
 혼비백산 하거고다
 이리 쿵광 저리 파당
 황황실색 털이 선다
 누구하고 내뺏던가
 낭자 거동 가련하다
 벌나비 노름 덧없도다
 정신수양 허사로다
 이 노름 다시 하여볼까

음력칠월 그믐 서호에 배를 띄우다

임술이든 갑술이든

칠월 그믐 일반이라

소동과 간 다음에
두어라 적벽의 남은 흥은

약산산인 또 있는가
나 썬인가

가을강 비 갠 후에
적벽강 무한한 흥을
우리도 태평성대에

그믐 달빛 더욱 좋다
소동과 네 홀로 누리단 말가
풍월주인 되어

■ 원문 판독 및 주석

艶謠—3)

錦江惜別洛陽郎君曲 금강석별낙양군곡

甲戌六月廿二日二上 錦城)花榜荊山玉魁

고이 ㅎ다 " " " "
去年 離別 今年 離別
緣分도 ㄷ 업고
洛陽郎君 離別 後 에
洛陽郎君 날 버리니
公山人物 도라보니
아전 將校
豪放 ㅎ 체 보기 실코
다시곰 헤아리니
錦江之西 漢江北의

나의 八字 고이 ㅎ다
離別마다 洛陽郎君
離別도 즈즐시고
다시 마즈 盟誓로다
二八青春 獨老 ㅎ가
豪傑蕩子 누구 " "
通引 官奴
말이 말슴 아니솨 가증 ㅎ 다⁵⁾
아마도 우리님은
洛陽人物 썬이로다

3) <염요>의 표현은 여타 기생가사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정병설 「해주기생 명선의 인생독백」, 『문헌과해석』 15, 2001 등의 주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앞의 아시미문고 목록에서는 이 '금성'을 나주로 보았지만, <화산교가> 앞부분의 문성을 보면 '금강을 낀 성' 즉 공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5) 작은 글씨는 병기된 것.

슬푸고
 우리 郎君 어디가고
 우리 두리
 粉壁紗窓 鴛鴦枕의
 綠楊芳草 好時節과
 四時長春 노닐 적의
 巫山雲雨
 덧 업도다 덧 업도다
 나의 八字 奇薄 하여
 갈 괴약을 완정 하니
 날은 어이 슈이 오며
 보기 슬타 馬夫 거동
 布政門⁶⁾ 밧 니 다르니
 雙樹城⁸⁾ 도라가니
 지국춤 소리에
 긴 혼숨 저른 혼 숨
 靑山은 疊 " 하고
 斜陽은 무슴일노
 말치소리 귀에 얼는
 羅衫을 뷔여 좁고
 無情 혼손 저 郎君 아
 속절업다 離別이야
 언제나
 우리 郎君 다시 만나

또 슬푸다
 이니 眞情 모로 논고
 서로 만나
 百年期約 다 니르라
 江樓烟月 歌舞夕의
 郎君離別 뜻 하엿나
 襄臺因緣
 過去一夢 우섯더니
 이런 離別 또 當 혼다
 남은 날이 머지 안타
 돕은 어이 지족 호노
 듯기 슬타 후비소리
 大通橋⁷⁾가 여괴로다
 錦江 구뵈 저괴로다
 一寸肝腸 다스논 듯
 臨別 하여 말이 업다
 綠水는 悠 " 혼디
 이니 가슴 타이논고
 城南官道 아득 하다
 江風의 빗기셔니
 紅顏薄命 어이 하리
 남은 간장 다 녹는다
 이심 因緣 니어볼가

6) 공주 감영의 정문.

7) 포정문 바로 앞에 있는 다리.

8) 감영 북쪽의 쌍수산성.

短歌

단가소題仁愛三上

洛陽은 人物府庫요
錦江花柳 洛陽人物
두어라
醉커든 長醉코

錦江은 花柳叢이라
뉘 아니 醉홀쇼냐
離別 업게

이디를 손 洛陽才子
洛陽才子 一渡 ㅎ면
어줍어
錦江水는

고이홀 손 錦江水라
어인 離別 잣단 말고
구뵈 " "

洛陽은 어디디며
年 " 歲 " 此江頭에
슬푸다
이 江 곳 아날너면

錦江은 어디런고
離別 卒 " 늘거세라
이 離別 업슬 ㄴ가

花山橋歌 화산교가

七月十三日夜 公山吏校輩 扶四五妓 會飲花山橋矣 入於營廬中 未盡而散 大生恐 慚
風飛電散 景色絶倒 故識之

어와 豪傑 님너들아
이씨는 어느 썬고
江天의 雨霽 ㅎ고
二三豪傑 四五粉黛
花橋夜宴 秉燭 ㅎ니
扶娼會飲 豪傑蕩子

이너 말씀 드리보소
秋七月 " 幾望에
錦城의 月明 ㅎ 제
豪蕩 ㅎ 興 을 계워
座上風流 迭宕 ㅎ다
누구 " " ㄸ엇던고

人物도 조흔시고 金兵房
 旗鼓官은 어이오며
 기즈흔디⁹⁾ 朴承撥¹⁰⁾
 축 " 名將 버러시니
 綺羅花叢 둘러보니
 雲髻紅顏 窈窕宴의
 조출흔 손 荊山玉과
 巫山의 朝雲이며
 物色도 奇妙 ्ह고
 회양희독 桂娘子는
 織織初月 鶯黃¹¹⁾粉白
 工巧흔 손 造化翁은
 뉘 肝腸을 석이려고
 過去風情 完山客은
 斜陽 山路 잠깐 드러
 人物도 험거롭고
 閉月羞花 못될진디
 軒軒長脚 다 펼치면
 괴벽 도은 蘇城妓¹³⁾는
 뉘시도 씬직 ्ह고
 綠柳戲弄 黃鶯이며
 너의 態度 말 ्ह라면
 一春花柳 無顏色 ्ह니
 座中豪傑 모든 둥에
 綠竹之聲 迭宕 ्ह디

風身도 動蕩흔스 朴別將
 徐風憲은 무슴일고
 뉘시잇다 노刑房
 아마도 湖中人物 저 쉰일다
 絶代佳人 다 모닷다
 歌舞嬌態 엇더튼고
 아리싯은 俊乂로다
 蓬島의 仙娥런가
 態度도 그지업다
 허리미도 뉘시잇다
 百萬嬌態 어릭엇다
 네의 人物 비져니여
 저리 묘히 생겨논고
 公山人物 구경코저
 座上參與 고이찬타
 眉目도 너그럽다
 女中丈夫 關係 ्ह라
 收殺¹²⁾ ्ह기 어려올니
 華宴參與 어인일고
 말이 말슴 아리싯다
 山樓 물 찬 제비런가
 이로 形容 어럽도다
 蘇城人物 判쥬거다
 剛腸 남자 멧멧치리
 秋波送情 暗 " ्ह다

9) 어여쁘다. 준수하다.

10) 승발은 承發이라고도 하며, 지방 관아에서 아전 밑에서 잡무를 보던 사람.

11) 거위의 새끼. 아리따운 모습을 가리킴.

12) 收刷? 흠어진 물건을 주워 거둠

13) 소성은 충청도 태인의 옛 이름.

楚臺의 因緣이여
 風情도 그지업고
 羣山의 夜靜 ㅎ고
 이 노름 이 排鋪를
 이다를 손 戲劇이야
 風流興致 다 못ㅎ여
 軍牢使令 느러서 〃
 至嚴홀 손 禁令이야
 衣裳顛倒 殺風景의
 金兵房의 거동보소
 徐風憲의 거동보소
 괴슈 잘친 李行民은
 可伶 ㅎ다 〃 〃 〃 〃
 自古花叢 風雨多ㅎ니
 杯酒興趣 姑捨 ㅎ고
 언제나
 이 ㅅ의 다시 모다

洛浦의 邂逅런가¹⁴⁾
 懷抱도 慇懃홀스
 短橋의 月沈 ㅎ디
 어니 ㄴ가 아을손가
 世上事가 圓滿 적어
 밤등만 夜三更의
 平地風波 어인일고
 扶娼會飲 들니엿다
 魂飛魄散 ㅎ거고다
 顛之倒之 不知去處
 遑 〃 失色 털슈셀다
 누구 桂娘¹⁵⁾ ㅎ고 ㅅ단 말가
 娘子 거동 가련 ㅎ다
 蜂蝶春光 ㄷ 업도다
 心頭經營 虛事로다
 이 노름 다시 ㅎ여 불가

秋七月既望泛舟西湖歌

壬之戌甲之戌에
 蘇子瞻 가은 後에
 두어라
 赤壁의 남은 흥언

秋七月既望은 一也로다
 藥山 〃 人 오단 말가
 나썸인가

14) 陳王 즉 曹植이 洛水를 지나며 <洛神賦>를 지은 것을 이름 낙신은 伏羲氏의 딸이 물에 빠져 신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수많은 사람이 낙수를 지났지만 오직 조식만이 낙신을 보았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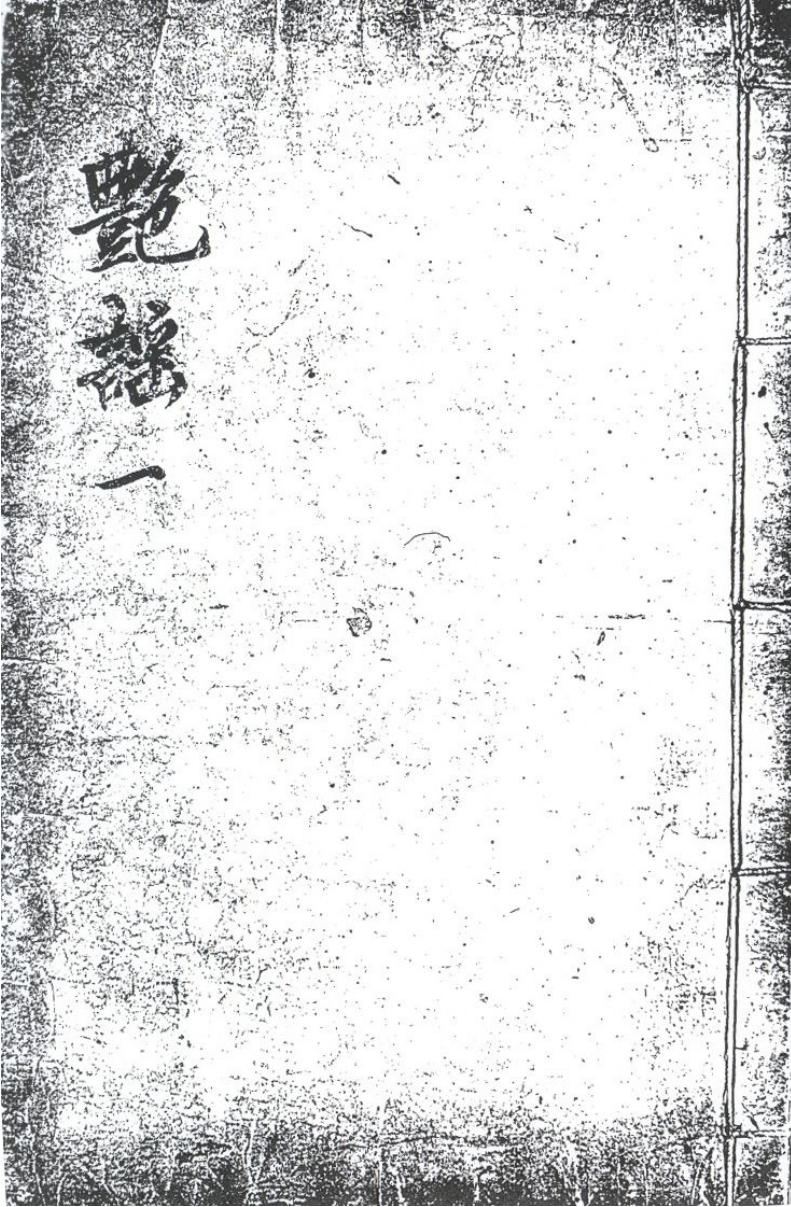
15) 작은 글씨는 부기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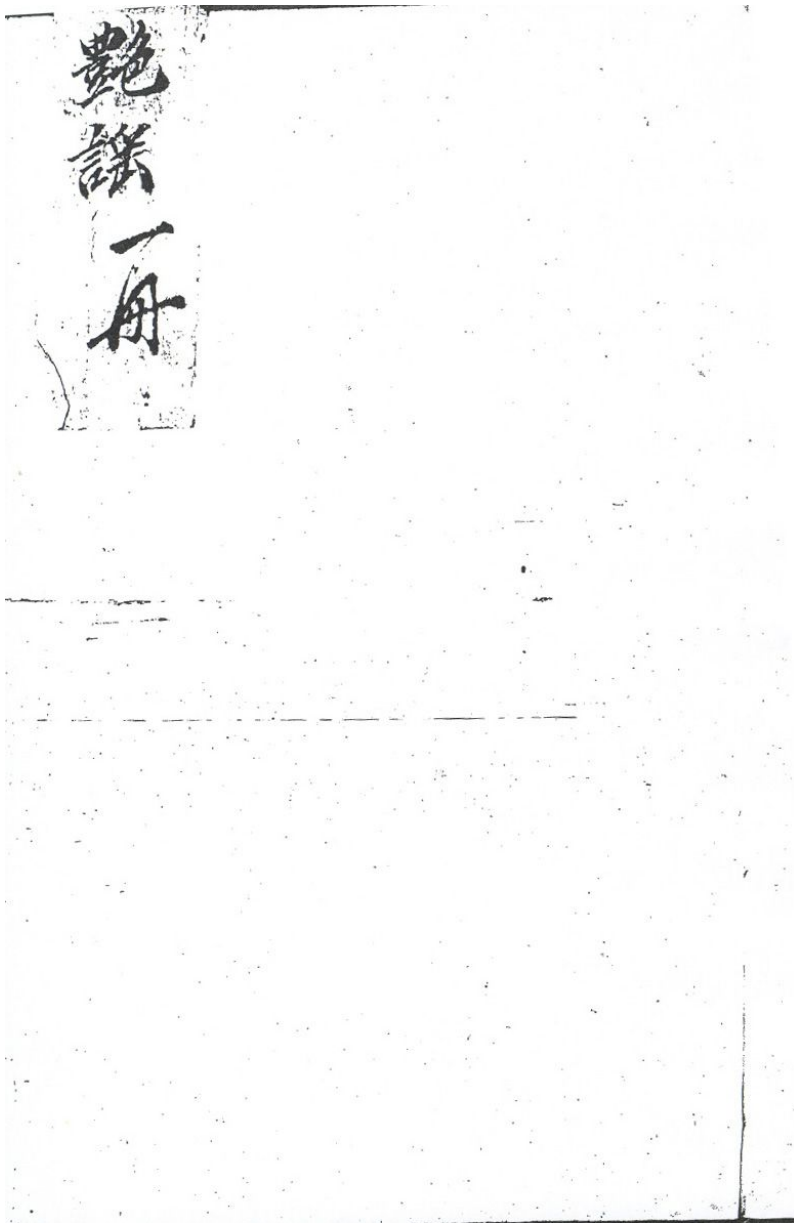
秋江消息 비긴 後 에
赤壁江 無限 흥 興 을
우리도
太平盛代의

既望月色 더욱 도타
子瞻이 네 홀노 누리단 말가
風月主張하여

K C I

■ 원문영인





錦江惜別洛陽郎君曲

甲戌六月廿二日正
錦江花榜荆室魁

고이후다
나의八字고이후다

去年離別今年離別
離別마다洛陽郎君

綠分도잇업고
離別도石준시고

洛陽郎君離別後에
다시나石盟誓도다

洛陽郎君말버리니
二八青春獨老을가

公山人物도다보너
豪俠子도다보너

아련將媛
通引官奴

豪放호근회보기심고
이말은아나. 배나

다심공회아다니
아마도우리님은
슬푸고

슬슬푸라

우리드리

외로만나

綠揚芳草好時節과
江樓烟月秋舞夕의

巫山雲雨

兼臺日綠

錦江之西漢江北의

洛陽人物선이로다

우리郎君어디가고

이내眞情모로느고

紫塵紗窗鴛鴦枕의

百年期約다니르라

中時長春노닐려의

郎君難別候드엇나

덧업드다

過去一夢우엇디

나외八字奇舊은이
 이런難別佐當은다
 날은어이슈이오의
 들은어이저후은노
 布政門吹바다르니
 大通橋가여기르다
 지국풍소리애
 一寸所勝다스노듯
 青山은置은고
 綠水는照은듯

갈기양을완정후
 남은날이머지안다
 보기술라馬夫가동
 듯이술라후비소리
 瓊樹도타가니
 錦江구비되르다
 인은술려르른술
 臨別은어이업다
 斜陽은우술일노
 이비가술라이노고

어찌 조리 귀에 알는
해 남宦道 아득 글다
定情호는 손외郎호하
紅顔舊舍 어이 글다
언제나

羅衫을 벗어 겨우
江風의 吹기 석니
속情을 업다 雅^別이아
날은 간장 다 녹는다
우의 郎君 다 시먼나
이성 目像 너어 불가

短歌

단가 全題
仁愛 三上

洛陽은 人物 府庫호
錦江은 花柳 叢이러

錦江 花柳 洛陽 人物
귀아 辭 重호하

두어라

의 다를 논 洛陽才子
고이 돌 논 錦江水 타

어 줍어

洛陽은 어 디 비며
錦江은 어 디 탄다
슬루 다

醉 커 은 長醉 코
離 別 업 끼

洛陽才子 一渡 江頭

어 인 離 別 歎 出 聲 고

錦江水 는

구 비

年 々 歲 々 此 江 頭 에

離 別 左 々 右 々 何 處 타

이 江 頭 何 處 離 別 處

이 離 別 處 離 別 處 離 別 處

花山橋歌

斗世丑가

七月十三日夜公山吏校

草扶四石岐會飲

花山橋矣入支陸廬中未盡之散大
生恐樹風元二卷散景名能傷故職之

어외 憂儲 남^다고^하어

이何^고어^고何^고已

이비 吟舍 드러 보호

秋七月^二殘^監州

江天의 雨雷 호호

二二三^三儻^四石^粉儻

錦帳의 月明 호호

三^三者^三也^三興^三을^三何^三何^三

花橋 夜宴 秉燭 호호

扶唱會飲 호^三儻^三音^三子

存上 瓜流 送客 호호

片^三不^三已^三別^三以^三何^三已

人物互存을 시已 金兵房
 凡月互動之而 朴別將
 의 凡을 다 朴承撥
 曰 시 이 다 노 刑房
 綺羅花蓋을 너 曰
 純代佳人 다 曰 出 다
 五를 호호 名 荆山玉 다
 少의 傳 名 俊人 다
 物色 互 齊 妙 曰
 態度 互 其 曰 다

積鼓官은 이 이 무려
 徐 凡 德 은 片 卷 일 이
 秀 名 將 來 이 시 다
 少 以 互 湖 中 人 物 列 傳 일 다
 雲 髻 紅 顏 窈 窕 之
 歌 舞 嬌 態 이 다
 巫 山 의 朝 雲 이 며
 蓬 島 의 仙 娥 한 가
 회 양 회 이 동 桂 子 노
 히 다 이 드 曰 曰 다

纖之初月璿黃粉白

百重嬌態이리영다

引肝腸을이이리이

되리모이생거는已

斜向山路望他三이

庭上奈此鳥이관다

团月羞花吳玳전디

世中丈夫周係三이

이이도은蘇娥妓는

華岳奈此이인의已

工巧은在造化翁은

이외人物비리이이

昌吉風情完山容은

公山人物구경은이

人物이이이구급已

眉自도너그럽다

軒長脚다떨치면

收殺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

綠柳戲弄黃鶯이
 山樓을 粧列이던가
 一春花柳는 彩兔를
 蘇故人物을 刺弄이
 篠竹之聲을 送客을
 秋波送情을 曉云을
 瓜情을 互고지업고
 襟抱을 互懇을
 이고름이 辭翰을
 어니위가 笑을 弄外

此의 態度를 吟고
 이 五形을 外를 習도
 座中을 高傑을 모든
 所를 男子를 以고
 攄高의 目錄이
 洛浦의 邂逅를
 屏山의 夜靜을
 艇橋의 月沈을
 이다를 弄고 戲劇이
 世上을 事가 圓滿을

風流身致다동고

昭堂以夜三更의

至歲호는禁令이

扶唱廬欣호는

金兵房외가동호는

顛之倒之不知去處

기^註芥^暇礎^暇冠^暇步^暇行^暇民^暇은

与^註子^暇호는

自古花叢風雨多

峰蝶春光^註호는

軍軍使令호는

事如風波이인일호는

衣裳顛倒報風景의

魂和魄散호는

徐風慮외가동호는

惶^註之^暇失色^暇호는

可^註怜^暇호는

娘子^註호는

杯^註酒^暇호는

心^註頭^暇호는

언제나

이런의 다시 보나
이그를 다시 보지 못할가

秋七月既望泛舟西湖歌

壬戌之歲甲戌之歲에

秋七月既望은 一也다

두어다

蘇子瞻가 是後에

蘇山 人오다 是後가

蘇山의 남은 후인

나선인가

蘇山江을 限은 후은

子瞻이 네를 보지 못하

秋江消息이 是後에
既望月色이 是後다

우
티
도

太平戲代의
風月三張子의

